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 DSME primed to land up to 12 LNG newbuildings for Novatek

대우조선해양이 러시아의 Novatek과 그 관계회사로부터 최대 12척의 Arc7 LNG선을 수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됨. 계약규모는 약 40억달러로 알려졌다며, 6척의 확정 수주 계약이 임박한 상황이고 6척의 옵션분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됨. 옵션분의 경우 중국의 Hudong-Zhonghua Shipbuilding이 가져갈 가능성 또한 있다고 알려짐. (TradeWinds)

## Hyundai Mipo beats New Times to \$350m Bahri deal

현대미포조선이 사우디아라비아의 Bahri로부터 50,000DWT급 PC선 6+4척을 곧 수주할 전망이라고 보도됨. 건조의향서(LOI)는 체결된 상황이며 7월까지 확정 건조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라고 보도됨. 척 당 선가는 3,500만달러를 상회한다고 알려졌다며, 확정 건조물량의 인도는 2022년부터 시작될 예정으로 알려짐. (TradeWinds)

## 산은 "현대중, 인수조건 재조정 요청 없어...연말 매각 마무리 목표"

산업은행이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조건 재조정 요청 여부에 대해 부인했다고 보도됨. 또한 연말 마무리를 목표로 각국 기업결합심사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고 보도됨. EU의 심사 결과는 9월에 확인될 예정이며 연말까지 심사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알려짐. (EBN)

## Driven by large newbuilds, scrubber investments to reach \$16bn by 2025

스크러버에 대한 총 투자 금액이 2025년까지 160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라고 보도됨. 대형선박의 경우 탈황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이득이 되기 때문이라고 보도됨. 현재 VLCC 신조선에 대하여 탈황장치를 부착할 경우 브렌트유 가격을 배럴 당 40달러 가정시 투자 회수기간은 5년 정도 수준이라고 보도됨. (TradeWinds)

## 드라이벌크 최악 상황 지났다

드라이벌크 시장의 최악 상황이 지나갔다고 보도됨. 곡물과 철광석 수송 물동량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됨. 주요 드라이벌크 선사들은 선가나 운임 수입이 4년 만의 최저 수준을 보였던 지난 5월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발표함. (선박뉴스)

## STX조선, 한 달간 조업 중단

STX조선해양은 6월 1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노조 파업으로 선행공정과 후속공정이 중단되는 선박 건조작업이 불가능해져 17일부터 한 달간 진행 조선소 선박 건조작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됨. STX조선은 지난 2018년 6월부터 수주 부진 영향으로 생산직 500여 명에 대한 무급순환 휴직을 반복하고 있다고 알려짐. (선박뉴스)